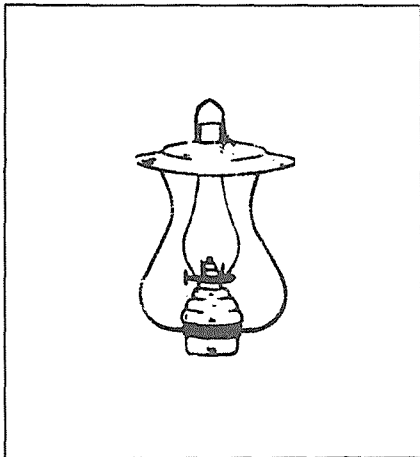


# 에너지 需給展望의 虛와 實



최근의 국제석유수급사정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경제의 基礎 에너지를 공급하는 石油産業으로서 앞으로의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이에 대비한 적절한 供給体系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全体에너지供給에 있어서 石油의 비중이 57.8%에 이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石油需給의 정확한 예측은 企業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韓國動力資源研究所와 油公이 각각 우리 나라의 長期에너지需給에 관한 展望을 발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韓國動力資源研究所의 장기에너지 수급전망은 아직 수정·보완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에너지 政策의 基本 지침이 되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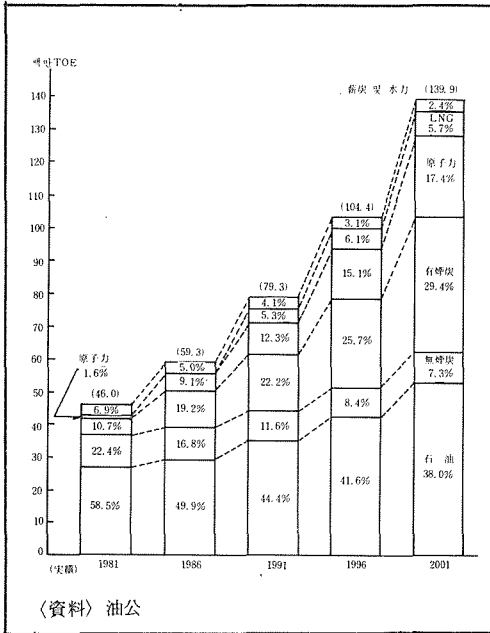
특히 油公의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은 우리나라의 企業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장기수급예측이라는 점에서 큰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엑슨, 소칼, 코노코등 國際石油資本들이 자체적으로 중장기 에너지환경을 분석,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 내지 유도하고 있음을 볼 때, 油公의 장기에너지 수급전망은 한결 돋보인다.

이 두 展望의 공통점은 앞으로 脫石油는 계속 진전되어 석유존도는 축소되어 갈 것이나, 石油는 今世紀末까지 主宗에너지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油公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石油依存度는 81년의 58.5%에서 오는 91년에는 44.4%, 2001년에는 38.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經濟協力開發機構)諸國의 경우, 석유가 오는 90년에 全体에너지수요의 5분의 2, 2000년에는 3분의 1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추세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예견케 해주고 있다.

石油需給전망은 앞으로의 原油가격예측에 따라 달라진다. 또 原油가격은 소비절약효과, 세계경기, 原油공급, 代替에너지개발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原油가격의 장기전망은 단기전망과는 달리 그렇게 밝지만

## 中長期 1次에너지 需要展望



은 않다. 최근의 原油價格 하락은 단기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高油價時代의 생산시설확장이 초래한 현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점은 原油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低油價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인 것이다.

대부분의 景氣예측에 있어서도 그렇듯이, 原油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原油가격을 정확히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第2次 석유위기 이후 소비국들의 예상보다 훨씬 큰 소비절약의 효과는 2~3년전만 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석유에 관한 전망을 시도해 왔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맞는 경우 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만큼 石油은 가변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한 「魔性的 자원」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에너지價格이나 수급예측은 ① 현재 알려져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둘 때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② 그 예측과정에서 상호 모순점이 없으며, ③ 컨센서스를 갖는 예측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에너지수요는 어디까지나 派生需要이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환경추세에 입각할 때 비로소 수급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특히 20년에 걸친 장기분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80년대의 세계석유수급전망을 보면, 대체로 自由世界 전체의 석유수요는 82년의 4천 5백 90만 B/D에서 오는 90년에는 5천만~5천 5백만 B/D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개별적인 수급전망을 보면, 오는 90년의 석유수요에 대해 美国에너지저장 5천만 B/D, 엑슨 5천 1백만 B/D, 코노코와 걸프 5천 2백만 B/D, IEA (國際에너지機構) 5천 4백만 B/D, 世界銀行 5천 5백만 B/D이다. IEA는 최근에 발표한 展望에서 다시 5천만~5천 6백만 B/D로 수정했다.

2000년까지의 장기수급전망을 보면, 美国 에너지저장이 4천 2백만~5천 2백만 B/D로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으며, 코노코는 5천 4백만 B/D, 엑슨은 5천 5백만 B/D를 제시하고 있다. 또 IEA는 최근전망에서 5천 8백만~7천 4백만 B/D의 신축성있는 예측을 제시했다.

결국 自由世界 전체의 석유수요는 79년의 5천 30만 B/D에서 今世紀末에는 5천 2백만~5천 6백만 B/D로 소폭 증가하리라는 것이 집약된 전망인 것 같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의 石油수요는 지난 73년의 第1次 石油危機 이전까지와 같이 큰 폭으로 늘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油公은 우리나라의 석유수요전망을 81년의 2천 6백 91만 6천톤에서 오는 2001년에는 5천 3백 15만 9천톤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수요증가율을 보면, 82~86년 2.3%, 87~91년 3.2%, 92~96년 4.3%, 97~2001년 4.1%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石油危機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脫石油政策下에서 原子力, 石炭, LNG 등의 비중을 높여 가고 있다. 그러나 硬直的인 脫石油政策에 대한 장기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의 低油價시대를 맞아 과연 계속적으로 硬直的인 脫石油政策을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무쌍한 국제에너지시장의 동향에 보다 유연하게 적시에 대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축성있는 供給體系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長期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金乾浩·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